

# 표심 ‘블랙아웃’...역대 대선 현시점 1위후보 ‘승리 100%’

## 투표까지 여론조사 ‘깜깜이’ 이재명 선두·김문수 추격세 범보수 단일화가 유일 변수

제21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28일부터 금지되면서 선거일까지 이어질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을 발판삼아 추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6일 전부터 투표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다. 그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막바지 표심 흐름을 감지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지만, 역대 대선에서는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승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강의 우열과 판세를 짐작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이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지키고 있는 현재 판세가 그대로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갤럽의 13~20대 대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투표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린 후보는 모두 당선됐다.

여론조사에서 접전이 펼쳐졌던 1992년 14대 대선(김영삼 후보 당선)과 1997년 15대 대선(김대중 후보 당선), 2002년 16대 대선(노무현 후보 당선)과 2012년 18대 대선(박근혜 후보 당선)에서도 반 발짝이라도 앞선 후보가 이겼다.

지난 대선 역시 본 투표 일주일 전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8%였다.

3년 전 블랙아웃 직전의 여론조사는 박빙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주목된다.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일단 이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전남매일을 비롯한 전국 29개 지역 대표신문이 소속된 대한민국의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4%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응답률 15.8%. 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

리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에서도 이 후보는 46%, 김 후보는 32%였다.

다만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최근 들어 좁혀지고 있다.

5월 4주차 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모두 9%p였으나, 5월 3주차의 경우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각각 22%p, 9.5%p였다. NBS 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일주일 사이에 22%p에서 14%p로 줄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이 정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남은 기간 변수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양측의 지지세가 모아질 경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판세를 가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 이준석 후보가 거들 거절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번 대선은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 끝까지 싸워 끝내 이기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소록도 찾은 김혜경 여사 “용기·사랑 기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7일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인들을 위로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 주민 10여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한센인이라는 낙인으로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핍박의 역사 흔적을 보전하고 싶고, 윤석열 정부 시절 예산이 깎여 노후한 생활동에 비가 샌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이에 “아픈 것도 힘든데, 집에서 비가 새면 얼마나 힘들시겠-

나”고 위로하며 “(이재명) 후보께 잘 전달해서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배석자는 전했다.

간담회 이후 중앙교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는 “한센인 생활동에 들어가 봐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한센인은 “소록도를 방문한 사람 중 생활동에 가보려 하는 사람은 김 여사가 처음”이라며 직접 안내했다.

중앙교회에서는 “저도 신자니까 잠시 기도하겠다”고 말하며 1~2분가량 예배에서 기도를 올렸고, 성당도 찾아

짧게 묵념했다.

김 여사는 소록도 방명록에 “아픈 시간을 견뎌온 삶의 자리, 그 용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억하겠다”고 적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소록도는 나눔·봉사·헌신을 실천한 곳이기도 했다”며 “후보 배우자는 약자들과 고통을 나누고 싶다는 평소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대선 기간 조용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산 기자

##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낭떠러지 택한 ‘이낙연’

### “김문수와 공동정부” 선언 지역 정치·시민단체 비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 선언하자 민주당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낙연 상임고문이) 끝내 내란 동조 세력과 손을 잡고 말았다”며 “이는 시도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내란 세력을 응징해야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에 “이낙연이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끝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더니 결국 전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을 택하고 말았

다”며 “호남과 민주당의 울타리 안에서 전남지사와 총리까지 지낸 분이 이렇게 되다니, 너무나 부끄럽고 슬픈 일이다”고 통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낙연 이름 석 자를 호남에서 지우도록 합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이 상임고문을 비판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 총괄상임선대위원장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광주 정신에 대한 부정이며,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시민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라며 “투표를 참여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야 이낙연 본인에게 이번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광주에서 심판당한 이낙연, 결국 김문수와 함께 또다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186개 시민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내란 세력과 한 몸이 되어서라도 정치적 욕망을 실현해보겠다는 이낙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낙연은 정치를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개인의 영욕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본 정치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후보와 이 상임고문이 함께하기로 선언한다는 데, 참으로 역사는 희극적이고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쿠라(변절한 정치인)’ 행보의 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과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정근산 기자

## 선관위 “사전투표 투명성 확보 최우선”

### 부정선거 의혹 차단 총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7일 부정선거 의혹 등 투명성 시비를 차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선까지 남은 주요 선거 일정은 선상투표와 사전투표, 그리고 내달 3일 치러질 본투표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본투표 하루 전날인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중 선관위가 관리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일정은 이날 29~30일 이틀간 전국 3천569개 투표소에서 치러질

사전투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각 정당도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선관위가 우려했던 조직적인 사전투표 거부 움직임 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이에 선관위는 사전투표할 CCTV 24시간 공개·투표지 수검표 등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마련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유지하는 한편, 이번 사전투표 기간

부터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투표자를 구·시·군 단위로 비교적 포괄적으로 공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를 1시간마다 공개해 사전투표 부실·부정 의혹을 잠재우고 투명성을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의 투표 방해·투표소 난입 등 소란 사태에 대비해 주요 투표소에 경찰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질서유지 협조를 경찰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치학회가 주축이 돼 구성된 시민단체, 교수 등 30명의 공정선거감관단에 투·개표 등 전 과정을 공개해 선거 불신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 상무지구 FUNIS

#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블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동작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55라인 시스템 스크린 12실과 뷔페사실

**2F\_SCREEN GOLF**  
동작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55라인 시스템 스크린 11실과 뷔페사실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마임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B1F\_BOWLING**  
고급스틸고 프레이밍형 24레인 규문의 대형 볼링장

**Floor Plan**

- 2-3F Screen Golf
- 1F Fun it, us Cafe & Lounge
- B1 Bowling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원빈리하로 192(서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센터동